

〈논문〉

오키나와 「토오토메」 承繼에 관한 一考察*

李 庚 熙**

목 차

- I. 序
- II. 오키나와의 位牌祭祀의 歷史
- III. 토오토메의 承繼 및 特性
 - 1. 承繼의 原則
 - 2. 本島 中南部의 承繼에 관한 禁忌
 - 3. 토오토메 承繼의 宗法的 特性
 - 4. 오키나와 門中制度의 特性
- IV. 토오토메 承繼로 인한 現代的 問題
 - 1. 오키나와 家族構造의 特性
 - 2. 토오토메로 인한 현실적 문제
- V. 祭祀用財産의 承繼에 관한 問題
 - 1. 오키나와 財産相續의 特殊性
 - 2. 日本民法과의 衝突
 - 3. 우리나라의 경우
- VI. 맺는 말

* 이 논문은 한남대학교 1999학년도 교비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 한남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I. 序

토오토메는 오키나와의 민속이나 문화를 가장 상징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말이다. 토오토메는 오키나와 특유의 조상숭배사상과 이와 관련된 오키나와인¹⁾들의 정신적·종교적·신앙적 의식구조의 바탕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토오토메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오키나와의 문화나 오키나와인들의 의식구조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당연히 토오토메라는 말의 의미도 그만큼 多義的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토오토메는 오키나와의 방언으로서 원래는 '존경하는 御前'이라는 의미였으며 근대에 이르기까지는 신앙대상으로서의 달(月)도 토오토메라고 하였다²⁾ 그러나 현대에 들어와서는 가장 좁은 의미로 쓸 때는 祖先의 位牌만을 의미하고, 조금 넓게는 祖先의 위패를 모신 喪廳 또는 佛壇을 의미하기도 한다. 한편으로 보다 관념적·추상적 의미로 위패에 받들어져 있는 祖先을 토오토메라고 하기도 한다.³⁾ 또 법률적으로는 位牌, 系譜, 祭具, 墳墓 등을 포함하는 소위 祭祀用財産을 나타내기도 한다. 이처럼 토오토메의 개념이 多義的이라는 것은 곧 토오토메에 관한 오키나와인들의 관념이나 생활 전반이 그 만큼 심층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조상을 모신 위패 그 자체를 토오토메로 이해하여도 큰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더구나 같은 오키나와에서도 祖先의 位牌를 오키나와 본도(沖繩本島)에서는 「토오토메」라고 부르지만 宮古島(미야코지마)에서는 「이빠이」라고 하며 八重山諸島(야에야마제도)에서는 「이빠」라고 부르고 있음을 감안하면⁴⁾, 원래는 토오토메가 位牌 그 자체를 의미하였지만 점차 다의적인 개념으

- 1) 일본어로 <오키나와정(沖繩人)>이라는 말은 <조선정(朝鮮人)>이라는 말과 마찬가지로 卑稱이기 때문에 오키나와에서는 오키나와사람이라는 뜻으로 <우찌난쥬(沖繩人)>라는 말을 즐겨 쓴다. 여기에서 한국어로 <오키나와인>이라고 쓰는 것은 卑稱이 아님을 밝혀 둔다.
- 2) 平敷令治, 「沖繩の位牌祭祀」, 『トトメと祖先崇拜』, 沖繩國際大學南島文化研究所, 1993, 34頁.
- 3) 平敷令治, 前掲論文, 34頁.
- 4) <이빠> 또는 <이빠이>의 發音上 그 語源에 대하여도 연구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로서는 그

로 확대된 것으로 추측되기 때문이다.

祖先의 위패를 존중하는 관념은 한국인, 중국인, 일본인 등에 공통적인 것이지만, 특히 오키나와인들에게서는 이러한 관념이 강하다. 오키나와인들은 祖先의 영혼이 토오토메에 머물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토오토메 자체가 바로 존경하는 祖先 그 자체이다. 그래서 전쟁 중에도 의류나 가구 등은 모두 불에 타버렸지만 토오토메만은 유린당하지 않도록 몸에 품고 도망을 다녔다는 실화가 있을 정도이다. 실제로 집에 화재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가지고 나오는 것이 토오토메라고 일반적으로 인식되어 있다고 한다.⁵⁾

이 글에서는 이러한 토오토메의 승계를 둘러싼 승계원칙과 그 문화적 특성을 살펴보고,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오키나와 특유의 여러 가지 사회적·법적 문제점들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것은 중국, 일본, 대만 등 다른 유교문화권 국가의 제사용재산에 관한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우리나라 민법상의 주요 쟁점의 하나인 제사용재산의 승계원리를 구명하고자 하는 필자의 노력의 일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II. 오키나와의 位牌祭祀의 歷史

토오토메와 관련하여 오키나와의 위패제사에 관해서도 이해해 둘 필요가 있다. 위패제사는 오키나와에 있어서 조상숭배의 일반적인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위패제사가 언제 오키나와에 들어왔는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⁶⁾, 대체로 15세기 내지는 16세기에 걸쳐서 王家나 上級官僚層에서 佛教 臨濟宗 僧侶의 지도를 받아 佛敎式의 위패제사를 수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⁷⁾ 그후 中國 福建省에서 이주한

이상을 알 수가 없다.

- 5) 福里盛雄, 「沖繩におけるトートメ(位牌)承繼をめぐる問題點」, 『沖繩法學』 第9號, 1981, 83頁.
- 6) 儒敎習俗에 의한 <神主>로부터 발달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金城 善, 「地方の位牌について一考察—沖繩本島南部糸満市高嶺地域の事例から—」, 『球陽論叢』, 鳥尻勝太郎·嘉手納宗徳·渡口眞清三先生古稀記念論集刊行委員會, 1986, 673頁.

36姓을 통하여 漢族風의 위패제사가 수용되었고, 특히 蔡姓一門의 祭祀나 家訓 등을 정리한 「蔡家家憲」(1736)은 漢族의 祖先祭祀敎本이라고 할 수 있는 「朱子家禮」를 거의 그대로 따르게 되어 유교적 영향을 크게 받게 되었다. 이렇게 하여 位牌의 형식은 朱子家禮에 따라 儒敎式을 취하면서 供養은 승려에게 부탁하는 형태, 다시 말해서 儒佛混合의 상태가 일반적으로 시행되기에 이르렀다.⁸⁾

이와 같이 首里나 那覇의 王家나 상급관료층에서는 16세기초까지는 위패제사를 전면적으로 수용하고 있었지만, 농촌에서는 이러한 관습이 17세기후반부터 19세기에 걸쳐서 서서히 확산되어 갔다.⁹⁾ 특히 1769년에는 伊計村의 하급관리였던 名嘉村親雲上이 위패가 없는 村人들을 위하여 掛物神主¹⁰⁾ 71軸을 만들어 나누어 준 사실도 있었다.¹¹⁾ 그러나 久米島, 八重山諸島, 宮古島 등에 있어서는 19세기에 들어와서까지도 위패를 가지지 않은 집들이 많았다고 한다.¹²⁾

그런데 오키나와에서는 한번 위패가 안치되면 영원히 계속된다. 그것이 本位牌이든 脇位牌¹³⁾이든 상관없이 한번 안치된 위패는 폐기할 수 없고 계속해서 위패 승계인에게 전승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¹⁴⁾

7) 平敷令治, 前掲論文, 20頁. 그런데 오키나와의 위패제사가 최초로 등장하는 史料는 朝鮮王朝實錄이라고 한다. 세조실록 8년(1462)의 기사에 의하면 濟州道人 梁成 등이 1456년 琉球의 久美島에 표류해서 那覇에 송치되었는데, 7월15일 절에서 死者의 이름을 적은 것을 壇위에 놓고 승려가 讀經을 하고 있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8) 平敷令治, 前掲論文, 22頁

9) 이에 대한 상세한 확산과정은 新里惠二, 「トートーメーと男系相續」, 『靑い海』, 第97號(1980.11.), 56-60頁 참조.

10) 掛物神主라고 하는 것은 故人の 이름을 적은 종이를 붙여서 족자처럼 걸어 두는 略式의 위패를 말하는 것 같고, 우리나라에서 제사시에 사용하는 <지방>과 그 성격이 유사하다.

11) 『球陽』, 卷16, 尙穆王 30年條

12) 平敷令治, 「南島民俗宗教への誘い -南島の祖先祭祀, 南島文化への誘い」, 『沖繩國際大學公開講座7』, 那覇出版社, 1998, 135頁.

13) 直系系譜에 연결되지 않는 故人の 위패를 별도로 세우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脇位牌라고 한다. 같은 門中の 故人の 위패를 모시는 경우가 많겠지만, 他系라고 하더라도 祖先이 은혜를 입어서 영구히 공양하는 소위 永代脇位牌도 있다. 이와같이 脇位牌에도 영구적으로 맡은 것도 있고 또 일시적으로 맡는 것도 있다. 일시적으로 맡는 脇位牌는 조만간 그것을 승계할 자가 나오는 것을 기대하는 脇位牌이다. 脇位牌는 佛壇의 끝에 안치하던가 아니면 별도로 다나(棚)를 만들거나 하는 것이 보통이다.

Ⅲ. 토오토메의 承繼 및 特性

1. 承繼의 原則

祖先의 位牌 즉 토오토메를 嫡男이 승계한다는 원칙이 확립된 것은 대체로 王府의 系圖編纂이 시작된 17세기 후반경으로 보고 있다.¹⁵⁾ 嫡子·嫡孫도 없고 다른 實子の 아들도 없으면 兄弟가 承繼하거나 一門으로부터 養子를 취하는 次善策이 강구된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①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嫡男의 뒤를 동생이 승계하거나(이를 排行이라고 한다), 혹은 동생의 자가 승계해도 좋으며(이를 猶子라고 한다), ② 嫡男이 惡疾에 걸렸거나 竊盜를 한 경우에는 廢嫡하고 그의 子(嫡孫)으로 하여금 승계하게 하고, ③ 父의 생년 중에 嫡男이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嫡孫이 있으면 연령에 관계없이 嫡孫이 승계하도록 하며, ④ 嫡出子가 없으면 側室에서 태어난 長子로 하여금 승계하도록 하고, 그것도 없으면 猶子(甥)에게 승계하도록 하고, ⑤ 猶子入籍後에 實子가 태어나게 되면, 猶子와의 관계는 해소되어 歸宗한다는 등이다.¹⁶⁾ 이와 같이 차선책으로서 排行·猶子·過房¹⁷⁾을 취하고 있었지만, 어느 것이나 家統을 잇는다는 것은 토오토메를 승계하고 家産을 상속하는 것을 의미하였다.

특히 근세에 들어와서는 여성이 토오토메를 승계하는 것은 王女가 아니고서는 허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이전에는 正統의 승계자가 없는 경우에 외척으로부터 嗣子를 들이는 것이 허용되었다고 한다.¹⁸⁾ 즉 딸을 혼인시키고 사위에게 승계

14) 그러나 宮古諸島の 多良間島나 八重山諸島の 波照間島 등 지역에 따라서는 33年忌 후에 神主를 태워버리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15) 本宗正統의 嫡男優先에 관하여 특히 《蔡家家憲》에는 <惣領家ハ代代先祖之位牌護仕一門之根本別而題目成者ニ候間若嫡子愚痴不肖ニ有之其家難保體兄及候ハ何連も相談を以嫡孫江爲家督可候若嫡孫無之別ニ直子直孫迄も於無之ハ一門之内問柄之近キ昭穆甥ニ相當候者より可相立候比儀肝要成事候間能能了書簡可有事>으로 명확히 밝히고 있다. 平敷令治, 『沖繩の祖先祭祀』(東京: 第一書房, 1995), 249頁.

16) 平敷令治, 前掲書, 250-251頁.

17) 同姓一門으로부터 養子를 취하는 것을 過房이라고 하며, 이 경우에는 一門으로부터 入養을 해서 사위(婿)로 삼아 승계한 예도 있다고 한다. 平敷令治, 前掲書, 253頁.

18) 平敷令治, 前掲書, 259頁.

하도록 할 수 있었다고 한다.¹⁹⁾

2. 本島 中南部의 承繼에 관한 禁忌

특히 오키나와 본도 중남부의 토오토메승계에 관하여는 엄격한 금기가 있었다. 즉, 토오토메의 승계와 관련하여 본도 중남부에 나타난 엄격한 세 가지의 금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다치 마지쿠이(タチー・マジクイ)

祭祀는 祖先으로부터 보아서 항상 父系的 血統으로 연결된 後孫에 의해 奉祀되는 것이고, 父系的 血統이 없는 他系的 者が 祖先의 祭祀에 혼합되어 관여하는 것은 금기시된다는 것이다.²⁰⁾ 따라서 토오토메는 항상 父系血統의 後孫에 의해서만 承繼될 수 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自系・他系の 구별은 원칙적으로 같은 門中인가 아닌가에 의해 판단된다고 한다. 결국 이 禁忌는 祖先의 제사에 관해서 同一 門中 이외의 者를 배제하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禁忌에 의해서 養子는 同一 門中の 男子에 한하고, 따라서 婿養子라도 다른 문중의 남자인 이상 이 금기에 저촉된다. 再婚의 경우에 데리고 온 者도 이 禁忌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같은 門中에 속하지 않는 者는 모두 단순히 제사에 참여하지 않는 것만이 아니고, 죽은 후에도 다른 先祖들과 함께 제사지내지 않고 별도로 장례된다. 他系로서는 妻만이 예외일 뿐이다.

(2) 차치 우시쿠미(チャッチ・ウシクミ)

祭祀는 항상 嫡子(チャッチ)(長男)에 의해서만 수행되고, 長男을 제치고 長男 이외의 子에게 제사를 수행시키는 것은 금지된다. 따라서 토오토메의 승계에 있어서는 항상 長男이 우선한다는 것이다. 이 禁忌는 종종 嫡出子와 婚外子와의

19) 결국 婿養子を 허용한 것으로 생각되지만, 그 정확한 概念, 形態 및 起源에 대해서는 연구가 필요하다.

20) 父系的 血統의 연결이 없는 他系를 ‘タチー’라고 한다.

차별조차도 무시하여, 婚外子라도 嫡出子보다 年長일 때는 婚外子が 토오토메의 승계자가 되는 경우가 있게 된다. 이것은 首里의 上級士族의 家에서도 嫡妻와의 사이에 長男이 出生・成長한 후, 遊女(ズリ)와의 사이에 出生한 年上の 子が 나타남으로써 결국 遊女の子가 本家를 계승한 예가 있다고 한다. 이러한 사례는 최근에도 가끔 나타난다.

(3) 초디 카사바이(チョーデー・カサバイ)

이 금기는 兄弟(チョーデー)의 위패가 같은 불단에 중복하는 것을 피한다는 것이다. 동일한 위패상에 형제의 위패를 두는 것은 먼저 죽은 사람 뒤에서 죽은 사람이 위에 올라가 놀러서 숨가쁘게 만든다고 믿기 때문이라고도 한다. 그런데 이 금기는 단순히 형제 간뿐만 아니라, 종형제의 사이에도 이치구 카사바이(イチク・カサバイ)로서 미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위패상에 제사를 받는 선조는 ‘一世帶一夫婦’라고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일세대에 복수의 부부를 봉사하는 제사의 승계법 예컨대 후계의 남자가 없는 兄 또는 從兄이 弟나 從弟를 養子로 맞아 들이는 것은 이 금기에 저촉된다. 그들의 死後 형제 내지 종형제의 위패가 같은 家의 위패상에 중복하기 때문이다. 결국 형제간 내지 종형제간 바꾸어 말하면 동세대간의 養子가 이 금기에 위배하는 것으로 되어, 따라서 養子는 형제나 종형제の子로부터 취하게 된다.

한편 오키나와本島에서는 家의 塚地에 그 家의 祖靈이 머문다는 신앙이 있고, 위패는 그 선조전래의 塚地내에 안치되어야 하기 때문에, 동일위패상에 형제의 위패가 중복하는 것을 금하는 초디 카사바이는 형제가 같은 塚地에 거주하는 것을 금하게 되어, 分家의 습속이 이 금기로부터도 요청되는 것이다.

(4) 이나구 간수(イナグ・ガンズ)

이상의 3가지 금기 외에 이나구 간수를 제4의 금기로 설명하는 학자들도 있다. 이것은 여자를 어느 家의 상속인이나 계승인으로 세워서 그 家系의 간수(ガンズ, 元祖 즉 先祖)에 짜넣는 것이라 하여 이를 금하는 것이다. 이것이 금기가 됨

으로써 발생하는 실제적인 문제는 ‘여자에 의한 분가창립이나 여자만의 가정에 入夫婚姻 내지는 婿養子 등이 불가능해 진다는 것’이다. 단 이들 경우에 先祖의 특정세대에 女系血緣을 덧붙이는 점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결국 다치 마지쿠이의 문제라고도 할 수 있고, 만약 이나구 간수의 금기에 적극적인 의의를 견출한다면, 앞에서 말한 것처럼, 즉 祖先祭祀를 모시는 것을 금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좋을 것이다. 결국 이 금기가 목적으로 하는 바는 위패의 승계 즉 제사를 승계하는 자는 父系 즉 男系の 男子로 한다는 점일 것이다.

3. 토오토메 承繼의 宗法的 特性

이상의 3 내지 4가지 禁忌의 親族構造上的 意義에 관하여 생각해 보면, 그것은 오키나와 본도의 중남부에 전형적으로 성립한 門中制度和 밀접불가분으로 관련되어 있지만, 오키나와의 門中은 결국 父系的인 혈연원리로 구성된 중국의 宗法制를 본딴 것이고, 따라서 위의 禁忌들도 기본적으로는 宗法的 祭祀承繼의 규범원칙으로서 이해할 수 있다.²¹⁾ 즉 祖先의 祭祀를 오로지 同宗의 男子孫에 주는 宗法的 規範原則은 우선 異宗의 者(즉 他門中の 成員)를 祭祀承繼者로부터 배제하고 그 收養을 거부하는²²⁾ 다치 마지쿠이(タチー・マジクイ)의 금기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그리고 男子孫에 의한 승계만을 확보하기 위하여 女子孫의 祭祀承繼를 부인하는 것은 이나구 간수(イナグ・ガン스)의 금기에 표현되어 있다. 또 祭祀의 長男子에 의한 承繼의 원칙 즉 嫡孫承重的 原則은 차치 우시쿠미(チャッチ・ウシクミ)의 금기에 반영되어 있고, 入養의 요건인 昭穆之序에 해당하는 원칙은 同世代者間的 入養을 회피하려는 소극적인 형태로서 초디 카사바이(チョーデー・カサバイ)의 금기 중에 이것을 간취할 수가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오키나와에 있어서의 祖先崇拜 그 자체가 반드시 중국으로부터 전파된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측면도 있다. 오키나와의 基層文化 중에

21) 漢族의 祖先位牌崇拜의 由來는 매우 오래된 것으로, 빨리는 殷商時代(기원전 16세기)에까지 소급한다고 한다. 莊英章, 『祖先崇拜: 福建閩南與臺灣漢人社會之祖先位牌祭祀』, 『トートーメと祖先崇拜』, 沖繩國際大學南島文化研究所, 1993, 41頁.

22) 이는 결국 異姓不養原則과 유사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서는 雙系主義的인 요소가 상당히 많았다고 한다. 本島 北部에 있는 國頭村(구 나가미촌)의 安波(아하)에서는 明治時代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門中制度가 형성되었고, 그때까지는 雙系主義的인 친족관계가 지배적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문중제도가 형성될 수 있었던 기반은 조선승배의 관념에서 비롯한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조선승배관념으로부터도 父系的인 조선승배관념이 발생하였을 수 있고, 또 실제로 이것은 집터와 祖靈과의 결합이라는 신앙에도 나타난다. 오키나와 본도에서는 이 신앙 때문에 집터의 매매가 일반적으로 꺼려지는 것이지만, 이러한 주술적 현상은 매우 오랜 기원을 가진 것으로 해석된다. 원래 원시사회와 고대사회에서는 祖先傳來의 토지에 祖先의 靈이 잠자고 있어서, 그 자손은 그 토지에 머물고 조선에의 제사를 게을리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관념이 널리 분포되어 있었다. 만약 이 제사를 게을리하면 무엇인가의 禍, 즉 「타타리」를 초래한다고 믿었다. 오키나와의 제사승계의 규범중에 이러한 오랜 기원을 가진 주술적 신앙의 계기가 내재하고 있다고 한다면, 오키나와의 父系的인 제사승계의 규범이 모두 중국의 종법제도로부터 왔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학자들의 공통된 생각이다. 따라서 오키나와의 제사승계규범도 오키나와 토착적인 신앙적 요소로부터 비롯하는 점이 많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말초적 부분에서는 앞에서 본 여러 가지 금기와 중국의 종법규범과의 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예컨대 年長의 婚外의 男子를 年少의 嫡出男子보다 우선해서 제사를 상속시키는 것은 중국의 종법제도에서는 보이지 않고, 또 同一人이 두 개의 家の 祭祀(宗祧)를 겸하여 가지는 것을 금하는 것은 「초디 카사바이」의 금기이지만, 중국에서는 清代에 이것이 兼祧, 雙祧, 또는 三祧라는 것으로 사실상 행하여 지고 있었다는 것 등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는 역시 상당한 유사성을 가지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다.

4. 오키나와 門中制度의 特性

(1) 門中の 意義

오키나와에서 門中²³⁾은 일반적으로 始祖를 공통으로 하는 父系血緣에 의해

결합된 集團²⁴⁾이라든가, 오키나와 本島나 그 주변의 離島 또는 八重山列島에 존재하는 父系親族集團²⁵⁾이라고 보통 설명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門中の 역할이 祖先의 祭祀와 관련이 크기 때문에 祖先의 祭祀를 지내는 父系血緣集團이라고 하기도 한다.²⁶⁾ 또 本島 糸滿市 주변에서는 같은 墓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門中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²⁷⁾ 그 외에도 父系親族集團을 나타내는 말로서는 門中 이외에도 一門(イチムン), 引(ヒチ・フィチ・ビチ), 引き部(フィチビー・ヒチビー), 眞筋(マシジ), 腹(ハラ), 一兄弟(チュチョーデー) 등 여러 가지가 쓰이고 있다. 그리고 같은 門中이라고 하더라도 首里, 那覇, 久米島の 士族門中과 기타 百姓들의 門中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대체로 一門은 公用語이고, 門中은 祭祀에 관계되는 用語이었으나, 근대이후에는 門中이라는 用語가 널리 보급된 것으로 추측된다.²⁸⁾

그리고 이러한 門中은 오키나와에서는 1609년 島津侵入²⁹⁾ 이후에 들어온 신분제도의 확립과 함께 발달한 것으로 추측한다.

(2) 토오토메의 承繼와 門中制度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오키나와의 門中制度는 地域的 내지 時代的으로

23) 門中은 日本語로 <문쥬>라고 발음하지만 오키나와 方言으로는 <문쥬>라고 한다.

24) 『沖繩大百科事典』, 沖繩タイムス社.

25) 『日本語大辭典』, 講談社.

26) 平敷令治, 『沖繩の祖先祭祀』, 63頁.

27) 金城 善, 「同じ墓に入る人人 一沖繩・糸滿の親族集團」, 『ふるさとへの傳承 解説編』(東京: 示人社, 1997), 222頁.

28) 平敷令治, 前掲書, 65頁.

29) 壬辰倭亂이 발발하기 2년전인 1590년에 豊臣秀吉은 사쯔마(薩摩)의 藩主인 시마즈(島津)로 하여금 琉球의 尙寧王에게 朝鮮侵略을 위한 出兵을 명했으나, 시마즈는 琉球人은 오래 태평을 누리고 있었기 전투력이 없다고 답신하고, 琉球에 대해서는 그 대신 7000명의 10개 월분 식량 1만여석을 供出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琉球는 이러한 요구를 받을 이유도 없거니와 그러한 능력도 없다고 거절하였다. 이에 격분한 시마즈는 1606년에 徳川家康에게 琉球의 무례를 이유로 토벌을 허가받고, 3년후인 1609년에 사쯔마군대 3000명을 軍船 100척에 실어 매습하여 琉球를 정복하고 琉球王 이하 100여명을 포로로 하고 돌아 갔다. 이후 琉球王國은 日本의 領土가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반드시 동일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토오토메의 承繼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형태로 분류가 가능할 것이다. 즉, 토오토메를 承繼할 남자가 없는 家가 父系的으로 혈연관계가 없는 남자를 養子로서 수용하고 門中도 또 이 他系の 養子를 正式 構成員으로 인정하는 門中과 앞에서 말한 「다치 마지쿠이(タチ・マジクイ)」의 禁忌에 의해 이 혈연관계가 없는 者의 수용을 거부하는 門中の 두가지 형태가 있는 것이다.

他系混淆를 엄격히 배제하는 것은 首里의 舊土族層의 문중을 중심으로 해서 오키나와 本島의 中部 및 南部의 百姓門中에 걸쳐서 강하게 나타나고, 本島 北部나 本島 周邊의 離島 및 八重山(야에야마)諸島나 宮古島(미야코지마) 등의 先島諸島의 門中은 얼마전까지도 他系の 混淆를 허용하고 있었다고 한다. 예컨대 本島 서쪽에 있는 栗國島(아쿠니지마)에서는 적어도 4세대 이전에는 養子 혹은 婿養子를 맞이함에 있어서 父系血緣上의 규제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한다. 또 座間味島(자마미지마)에서도 御嶽³⁰⁾의 祭祀를 통해서 형성된 父系の 血族集團에서도 다른 御嶽에 속하는 남자를 養子 혹은 婿養子로서 맞이하는 것이 1939년까지도 행해지고 있었으며, 本島 北部의 大宜味村(오오끼미촌) 田港에서도 1971년부터 3-4세대 전까지는 族外養子が 행해지고 있었다고 한다. 심지어는 八重山諸島에서는 현재도 養子는 반드시 同一門中으로부터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고 있다. 本島 南部의 村落에서조차도 明治末期 또는 大正初期에는 딸이 집에 남고, 同一 父系血緣範圍가 아닌 他系の 남자를 婿養子로서 맞이한 사실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대체로 本島 南部의 村落에서는 父系血緣集團內部로부터 養子를 맞이하고, 특히 父의 兄弟의 次男 이하를 養子로 하는 것을 理想的인 入養이라고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이와 관련하여 「초디 카사바이」와 「찾치 우시쿠미」의 兩禁忌를 동시에 준수하려면, 父의 兄弟 또는 從兄弟의 次男 이하를 養子로 맞이하여야 한다. 父의 兄弟의 家의 長男은 자기의 家를 승

30) 오키나와에서는 많은 신들 중에서 주된 신은 부락 주변의 수목이 울창한 곳의 큰 나무를 따라 내려온다고 생각하여 그곳을 신성한 지역으로 하였는데 이를 <오타케(御嶽)>라고 하였으며, 여기에서 마을제사 등을 지내는 것이 보통이다. 比嘉春潮・霜多正次・新里惠二, 『沖繩』(東京: 岩波書店, 1996), 157頁.

계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3) 門中の 再編成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하여야 할 것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他系の 養子を 인정하고 있었던 지방에서도 최근에 이르러 다시 「다치 마지쿠이」를 禁忌視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栗國島에서는 4世代前 頃부터 父系血緣이 아닌 者を 養子로 하는 것은 父系血緣原則을 깨뜨려 피(血)의 不淨을 초래함으로써 子孫에게 나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座間味島에서도 1939년을 경계로 해서 他系の 養子を 행하지 않게 되었고, 大宜味村에서도 3-4세대 전까지만 행하여졌을 뿐이다. 그래서 이 「다치 마지쿠이」의 채용에 의해서 門中은 「다치(夕チ)」의 요소를 배제하고 「시지(シジ)」³¹⁾에 따라 재편성된 것이다.³²⁾

이러한 「다치」의 門中으로부터 「시지」의 門中으로 재편성된 것은 首里의 士族文化가 점차 百姓들에게 파급되어 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문중의 재편성을 위해서는 父系の 血統을 확인하는 작업이 선행되지 않으면 안되었다. 여기에서 오키나와의 유명한 巫女인 「유타(ユタ)」의 활약이 시작된다. 즉, 祖上의 계통에서 他系를 배제하기 위한 父系の 血統을 확인하는 작업, 소위 「시지타다시(シジタダシ, 筋目糾シ)」는 대부분의 경우 「유타(ユタ)」나 「문시리(ムンシリ)」들의 「한지(ハンジ)」라는 일종의 「占」에 의했던 것이다. 그 동안 이러한 시지(シジ)의 문중제도에 익숙하지 않았던 지방에서는 本島 中南部地方의 「유타」를 초대하여 「한지」를 시행하였으며, 원래 門中制度가 없었던 國頭村 安

31) 他系를 混淆하지 않고 父系の 血緣의 연속을 관찰하는 門中을 <시지>라고 한다.

32) 門中이 再編成되는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즉, A家の 分家인 B家は 대대로 父系血緣에 따라 존속해 왔으나, 4代前에 남자인 承繼人이 없었기 때문에 他系인 C家로부터 婿養子を 영입하였기 때문에 현재로는 生物學的 父系血緣은 C家和 연결되게 되었다. B家は 생물학적으로는 父系血緣이 C家和 연결되어 있지만, B家は 여전히 A家和의 관계가 단절된 것은 아니고 女系를 一代介在시킴으로써 A家和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물론 A家和 C家は 祖先을 달리하는 계통이고 同一集團을 형성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B家は C家和 父系血緣集團을 만들고, 동시에 A家和도 부계혈연집단을 형성하고 있으며, 兩者 모두 門中으로 부르고 있다. 이 兩者를 구별하면 前者는 <시지(シジ)>의 門中, 後者は <다치(夕チ)>의 門中이 된다. 대부분의 마을사람은 이 兩門中の 祖先祭祀를 모두 수행하고 있다.

波에서는 首里나 那覇에 가서 「문시리」를 배워서 명확한 先祖의 系譜를 만들었다고 한다.

이러한 門中の 再編成은 明治時代以後에 행하여 졌지만, 그 이유에 관하여는 현재 충분히 해명되어 있지 않다. 다만 國頭村 安波에 있어서의 門中制度 創出 過程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士族과 百姓의 身分의 差別의 撤廢가 士族의 人祭祀制度의 보급을 촉구한 것이 아닌가 추측할 뿐이다.

(4) 門中墓의 管理

일반적으로 볼 때 같은 門中이라 하더라도 首里士族門中과 一般百姓門中과의 사이에는 墓에 대한 관념이 전혀 다르다. 즉 士族門中에서는 分家を 하는 경우에는 대체로 墓도 별도로 건설하는 것이 보통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百姓門中 특히 本島 南部의 대부분의 百姓門中에서는 分家を 하여도 별도로 墓를 건설하지 않았다.³³⁾ 즉 分家 여부와는 관계없이 門中을 구성하는 全世帶가 하나의 門中墓를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두 개 이상의 門中이 한 개의 墓를 공동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실제 糸滿市字糸滿의 幸地腹과 赤比儀腹의 兩門中이 共同으로 사용하는 墓가 현재까지도 이용되고 있다.³⁴⁾

이 경우 門中の 가장 큰 機能은 물론 門中墓의 共同管理 및 維持이다. 糸滿市字糸滿의 경우를 보면 「고분(コブン)」이라고 하는 年祭가 墓를 신축한 해를 起點으로 해서 1年期, 3年期, 7年期, 13年期, 25年期, 33年期의 형식으로 사람의 年忌祭와 마찬가지로 행해지게 되는데, 그 때 墓의 補修나 改築을 하게 된다. 제2차대전 이후에는 10년에 한번씩 「고분」을 행하고 墓의 개축이나 보수 등을 행하고 있다고 한다.³⁵⁾

33) 그러나 本島 中部의 百姓門中 중에서는 分家を 하면 墓도 별도로 만드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34) 오키나와의 墓의 형식은 크게 横穴式과 平地式으로 나눌 수 있지만, 이를 세분화하면 매우 다양한 형태의 墓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개는 家型, 塔型, 箱子型의 건축물을 세우고, 그 속의 墓室에는 洗骨이나 火葬을 한 遺骨을 넣은 厨子を 안치하는 것이 보통이다. 자세한 것은 平敷令治, 前掲書, 267頁 以下 參照.

35) 金城 善, 前掲論文, 223頁.

이때 필요한 비용은 남녀노소의 구별없이 門中の 全構成員이 공동으로 부담한다고 한다.³⁶⁾ 그리고 이러한 門中の 운영을 위하여 「當(アタイ)」, 「親雲上(ペークウ)」 또는 「佐事(サジ)」라고 하는 직책이 있고, 이는 子孫의 世代에 따라 돌아가며 맡는다고 한다.³⁷⁾

IV. 토오토메 承繼로 인한 現代的 問題

1. 오키나와 家族構造의 特性

오키나와의 전통가족은 일본의 「家(いえ)」 제도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오키나와의 경우에는 일본의 전통적인 家의 구성요건이라고 볼 수 있는 家業, 家産, 家門, 家風 등과 같은 개념이 거의 없었다. 家業 등의 개념이 있었다 하더라도 일본문화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首里의 琉球王族에 국한된 것이고 오키나와의 일반 百姓層에서는 찾아 볼 수 없었다. 마찬가지로 家長權, 主婦權, 隱居制度 등의 관습도 명확하지 않았다. 따라서 오키나와家族의 연속·불연속은 일본식의 경영논리에 의거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男系原理에 충실한 家族系譜에 따라 超世代的으로 家族의 連續性を 보장하는 제도가 확립되어 있었다.

이와 같이 오키나와 家族制度는 根本적으로 男系原理에 의한 超世代的인 系譜關係의 連續성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戰後의 産業化로 인하여 家族의 經濟基盤에는 상당한 변모가 있었지만 家族制度 자체에는 근본적인 변화가 없었다.³⁸⁾ 즉, 居住關係, 相續關係, 老父母扶養, 親族關係 등은 여러가지 世俗的인 要因에 의해 변화가 적지 않았지만, 長男優先 또는 長男家族優先制度를 中心으로 하는 序列意識에는 전혀 변함이 없었다.

또 祖先은 祖先神으로서 그 子孫인 家族에 의해 位牌에 모셔진다. 오키나와의

36) 金城 善, 前掲論文, 223頁.

37) 金城 善, 前掲論文, 223頁.

38) 玉城隆雄, 「ジェンダーから見た沖縄の家族の特色と變化」, 『沖縄國際大學シンポジウム資料集「家族の變容」』, 1998, 78頁.

서는 祖先崇拜가 일찌기 土着宗教로 심화되었으며, 지금도 거의 대부분의 개인이나 가족들은 그것을 자신들의 宗教로 여기고 있다. 宗教로서의 祖先崇拜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位牌 즉 토오토메의 정당한 承繼이다. 이와 관련하여 오키나와의 조선송배구조의 특징은 先祖와 자손사이에 인과응보적인 상호관계가 성립되어 있다는 것이다.³⁹⁾ 다시 말해서 「저 세상」과 「이 세상」이라는 차원을 넘어서 死者와 生者の 관계가 상호 因果應報論理에 의해 구조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가족의 幸不幸은 모두 祖先과 子孫의 因果로 생각한다. 자손이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면 조상의 보살핌으로 인한 蔭德의 결과이기 때문에, 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손들은 늘 祖先의 위패 즉, 토오토메를 잘 모시고 祖先의 공양을 게을리해서는 안된다. 한편 자손이 病이 나거나 불행하게 되는 경우에는 무엇인가 祖先에 대한 敬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祖上神으로부터 일종의 神罰인 「타타리」를 받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와 같이 祖上은 死後에 神이 되지만,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하여 守護神이 되기도 하고 해코지를 하는 神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따라서 神의 「타타리」가 있는 경우에는 문제해결을 위한 원인을 구명하기 위해서는 직접 神과 靈的으로 交感할 수 있는 「샤만」의 도움이 필요하게 된다. 오키나와에서 이러한 역할을 하는 者가 바로 「유타」이기 때문에, 오키나와 사회에서 유타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다.⁴⁰⁾ 지금도 사람들이 병이 난 경우에는 「醫師半 유타半」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유타」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⁴¹⁾

유타가 문제해결의 과정에서 가장 전형적으로 제시하는 처방이 바로 「시지타다시(シジタグシ)」이다. 이것은 선조로부터 연결되어 오는 계보관계가 父系血緣에 따른 장남우선 등의 원리에 정당하게 합치하는가를 확인하는 것이다. 대개의 경우 이러한 승계의 정당성에 문제가 있으면 조상신으로부터 「타타리」를 받는 원인이 되므로, 이 정당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차치 우시쿠미」라든가

39) 玉城隆雄, 前掲論文, 78頁.

40) <유타>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로는 友寄隆靜, 『なぜユタを信じるか』(那覇: 月刊沖繩社, 1981)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으며, 최근에는 琉球新報(1999.1.10.字)에 특집기사로 沖繩版 <마녀사냥>이라고 불리웠던 유타제관을 통해서 오키나와에서 유타의 뿌리깊은 특성을 소개하고 있다.

41) 玉城隆雄, 前掲論文, 78頁.

「이나구 간수」등과 같은 타부에 의해 엄격하게 규제되는 것이다. 따라서 여성은 아들을 낳아야만 역할수행을 했다고 인정받을 수 있다. 최근에 가족성원인 여성을 전통적인 혈연주의로부터 자유로운 개인으로서 해방시켜야 한다는 동향이 나타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와 반대로 계보관계의 연속성을 지속시키기 위해 여성을 구속하려고 하는 전통지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오키나와의 가족은 오키나와의 여성이 이러한 혈연적인 속박에서 풀려질 때 비로소 현대적 의미의 부부중심적 가족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과도적 상황속에서 오키나와에서는 생물학적 규정요인과 제도적 기대속에서 고뇌하는 이른바 토오토메 증후군에 걸려 있는 여성들이 적지 않다고 한다.

2. 토오토메로 인한 현실적 문제

한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오키나와의 토오토메 문제는 문중제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이 문중제도가 엄존하고 있는 한 토오토메 문제는 결코 용이하게 해결할 수 없는 사회문제일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 처럼, 「타치 마지쿠이」 등의 금기는 원래 본도 중남부에서 엄격하게 유지된 것이고, 다른 지방에서는 「다치」의 門中이 널리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오키나와 전체에 首里나 那覇의 父系血統文化가 보급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본도 중남부에서도 이전에는 他系の 壻養子를 맞는 것이 가능하였고, 실제로 首里의 舊士族階層에서도 他系の 壻養子를 맞이한 사례가 있는 家譜가 적지 않게 발견되고 있다. 이것은 부계혈통의 가족관습이 그렇게 오랜 역사를 가진 것은 아니고, 또 실제로 「타치 마지쿠이」의 금기도 그다지 엄격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러한 부계혈통의 관습이 오늘날까지 그토록 강력한 규범력을 가지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이 의문에 대해서는 한결같이 「유타」의 존재와 역할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즉, 토오토메승계의 타부를 위반하면 祖先의 「타타리」가 자孫에게 미친다는 「유타」의 「한지」에 외포심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런데 오늘날 현실적으로 부닥치는 문제가 딸만 있는 집의 토오토메 승계와 재산상속의 문제이다. 토오토메 승계의 관습에 의하면 딸은 「이나구 간수」에 의

해 토오토메를 승계할 수가 없고, 결국 門中男子 중에서 養子が 선임되어 토오토메와 財産을 相續하게 되는 것이다. 딸은 父의 토오토메는 물론이고 재산까지도 송두리채 빼앗겨야 하는 것이 현실이고, 이것이 싫으면 婿養子を 취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러한 것이 「유타」의 「한지」와 함께 門中으로부터의 강력한 압력에 의하여 오늘날까지 유지되어 오고 있는 것이다. 만약 「이나구 간수」에도 불구하고 딸이 토오토메를 승계한다면, 타타리와 같은 초자연적인 제재와 門中の 사회적 제재를 감당하지 않으면 안된다.⁴²⁾

그 외에도 토오토메 문제로 인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① 아들을 낳지 못하는 妻의 이별, ② 아들을 낳기 위한 蓄妾의 習俗, ③ 嫡出女에 대한 庶子男의 優先의 승계로 인한 紛爭, ④ 多産을 가져오는 아들출산의 강제, ⑤ 入養의 강제, ⑥ 長男의 居住移轉에 대한 구속 즉, 제사승계자인 장남은 토오토메를 모시는 先祖의 집터에 살지 않으면 안된다는 구속, ⑦ 자식이 없는 未亡人이 門中에 의해 지정된 토오토메 승계자에게 墓, 家屋 기타의 재산을 증여할 것을 강제시킴으로써 부녀자의 생활을 경제적으로 위협하는 경우 등이다. 이러한 문제들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고 해결될 것인가는 상당한 관심을 끄는 문제라 아 니할 수 없다.

V. 祭祀用財産의 承繼에 관한 問題

1. 오키나와 財産相續의 特殊性

오키나와에서 토오토메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보통 제사 등을 감당하기에 충분한 田畝 등의 부동산이 있는 것이 보통이다. 이것은 곧 토오토메의 승계가 財産相續問題임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다. 특히 이 문제는 1972년 오키나와의 施政

42) 이러한 문제는 결국에는 日本民法 제897조에 의거하여 해결할 수밖에 없으며, 家庭裁判所는 女性的의 相續이나 承繼를 인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訴訟이 제기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

權復歸에 따라 오키나와 본토의 개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복잡한 문제를 야기하게 되었다. 예컨대 오키나와 해양박람회 개최를 계기로 활발하게 이루어진 관광개발의 결과 地價가 상승함에 따라, 재산상속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이와 함께 재산상속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토오토메 승계에 관해서도 새로운 문제가 야기되기에 이르렀다.⁴³⁾

원래 首里의 武士階級에서는 토오토메의 승계자인 長男이 家屋 및 집터, 墳墓, 耕作地의 대부분을 상속하고, 次男 이하는 새로운 집터와 약간의 耕地를 분배받아 分家하고, 딸은 원칙적으로 재산을 분여받지 못한다. 이 長男의 우월적인 재산상속권은 오로지 토오토메 승계자로서의 지위에 부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들이 없고 딸만 있는 집에서는 딸은 토오토메를 승계할 수 없기 때문에 재산도 상속할 수가 없다. 따라서 딸밖에 없는 재산가의 집안에서 토오토메 승계를 둘러싼 분쟁이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⁴⁴⁾

2. 日本民法과의 衝突

일본의 明治民法에서는 祭祀財産의 소유권은 家督相續人의 특권에 속하고, 사망상속의 경우나 생전상속의 경우에 相續對象이 되고 家督相續인이 그 승계인으로 되었다. 그러나 194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현행 일본민법에서는 제사재산을 상속의 대상으로부터 제외시키고, 상속인이 당연히 제사승계인으로 되지는 않고, 상속인이 아닌 者도 그 승계인이 될 수 있게 되었다. 이 경우 제사재산은 系譜, 祭具, 墳墓의 所有權에 한정된다. 그리고 제사재산의 소유권은 祖先의 祭祀를 主宰할 者가 이를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제사를 주재할 者를 정하는 방법은 被相續人의 指定, 慣習, 家庭裁判所의 指定 등에 의하도록 하였다(日民 제897조).

우선 제1순위의 승계인은 被相續人의 指定에 의해 정해진다(日民 제897조 제1항 단서). 피상속인의 지정의 法的 性質은 법문상 명확하지는 않지만 피상속인의

43) 新里恵二, 前掲論文, 72頁.

44) 이 경우 財産이 지나치게 많으면 死後養子가 되려는 者가 많고, 또 財産이 없으면 死後養子가 되려는 者가 없기 때문에, 어느 쪽이든 딸만 있는 경우에는 토오토메의 承繼를 둘러싼 어려움을 겪게 된다.

身分의 一方的 意思表示이고, 그 의사표시의 방식은 書面이나 口頭로도 가능하다고 본다. 또 生前行爲로도 가능하고 遺言에 의하여도 좋다. 또 유언으로 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遺言方式에 따르지 않아도 좋은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어떠한 방식에 의하든 그 指定의 意思가 외부로부터 추인되면 되고, 피상속인의 자격에 관하여도 특별한 규정이 없다.

다음에 피상속인의 지정에 의한 제사주재자가 없는 경우에는 慣習에 의해 주재할 者를 정한다(日民 제897조 제1항 본문). 제사를 주재할 者는 장남으로 하든 차남으로 하든 아들이든 딸이든 관습에 의하기만 하면 문제가 없다. 그러나 당시의 관습이 公共秩序에 반하는 경우에도 관습에 따를 것인가는 문제가 있다. 法例 제2조와의 관계에 있어서 공공질서에 반하는 관습이 존재하는 경우는 관습이 없는 것으로 보아 家庭裁判所의 指定에 의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제사주재자에 관하여 피상속인의 지정도 없고 또 그에 관한 관습도 명확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재판소의 지정에 의해 제사를 주재할 者를 정한다(日民 제897조 제2항). 가정재판소는 제사주재자를 정하는 경우에 먼 조상보다는 가까운 조상, 즉 피상속인과 밀접한 생활관계가 있는 자로서, 피상속인의 영혼을 후하게 기리는 심정이 강한 사람을 선발할 것이다. 대체로 祖先의 祭祀는 死者에 대한 모정, 애정, 감사의 기분에 의해 행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⁴⁵⁾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제사재산을 家督相續人의 특권으로 하는 明治民法이 오키나와에 시행되었을 때는 토오토메 승계에 있어서 男子優先思想의 강화에 다소의 영향을 주었을 뿐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 즉 遺産은 家の 재산이라는 관념 하에서 戶主의 지위와 불가분적으로 상속되었기 때문에, 오키나와에서는 토오토메를 승계하는 者가 遺産도 상속하는 것으로 되어 토오토메가 상속의 중심이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현행민법의 시행에 의해 명치민법의 家督相續은 폐지되고

45) 이에 대하여 판례는 피상속인의 사실혼관계에 있던 처를 제사주재자로 정한 경우(大阪高決昭和24.10.29. 家庭月報2卷2號15頁), 分家한 長男과 직업을 달리하여 피상속인과 공동생활을 하지 않았던 次男의 제사승계를 부정하고 피상속인과 함께 농사를 짓고 있었던 次女를 제사주재자로 지정한 경우(名古屋高決昭和37.4.10. 家庭月報14卷11號111頁), 제사승계의 의지가 없는 장남을 배척하고 생전부터 제사주재를 부탁하고 있었던 처를 제사주재자로 지정한 경우(鳥取家裁判昭和42.10.31. 家庭月報20卷5號129頁) 등이 있다.

남녀평등의 재산상속이 행해지게 되자,⁴⁶⁾ 재산을 포함한 토오토메의 남자우선적 단독승계제도와와의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갈등은 특히 祖靈의 「타타리」라는 것을 이용해서 家督相續的인 토오토메 승계제도를 온존하려고 하는 「유타」의 존재에 의해 더욱 부추겨지고 있음은 앞에서 언급한 바 있다.

3. 우리나라의 경우

우리 민법도 祭祀用財産을 일반상속재산과는 별도의 특별재산으로서 별도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하게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1008조의 3에서 특별히 취급하고 있는 祭祀用財産은, ① 墳墓에 속한 1정보 이내의 禁養林野와 ② 600평 이내의 墓土인 農地, ③ 族譜와 ④ 祭具 등이다⁴⁷⁾. 이러한 제사용 재산은 오로지 조상의 제사를 위하여 존재하는 재산으로서 家統의 상징이 될 수도 있고 家門의 자랑일 수도 있고 宗族團結의 매개물일 수도 있는 宗物이다.⁴⁸⁾ 따라서 이러한 제사용 재산에 대해서는 일반 상속과는 달리 生前承繼도 가능하고, 또 민사소송법상 압류가 금지되는 등 특별취급을 하고 있다(民事訴訟法 제532조 제8호·제9호).

또 민법 제1008조의 3은 이들 祭祀用財産의 소유권은 '祭祀를 主宰하는 者'가 이를 승계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실제로 제사를 주재하는 者의 결정 방법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따라서 이를 둘러싸고 실제로 제사를 주재하는 者가 제사용재산을 승계해야 한다는 견해,⁴⁹⁾ 가족의 협의에 의하여 제사용재산의 승계자를 결정한다고 보는 견해와⁵⁰⁾ 戶主承繼人이 승계함을 원칙으로 해

46) 일본의 신민법의 친족상속편은 제2차 대전후인 194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나, 오키나와의 경우는 1947년 5월 3일 일본헌법이 시행되었을 때나 신민법이 시행되었을 때 미군의 점령하에 있었기 때문에 구민법이 그대로 살아있는 상태가 되었다. 이에 대한 반발이 거세어짐에 따라 1957년 1월 1일부터 비로소 신민법이 오키나와에도 적용되기에 이르렀다.

47) 이와 같이 경우에 따라서는 방대한 재산이 될 수 있는 祭祀用財産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 민법과 일본민법의 다른 점이다. 일본민법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祭祀用財産을 系譜, 祭具 및 墳墓 그 자체에만 국한하고 있다(日民 제897조 제1항 참조).

48) 朴秉濠, 『家族法』(한국방송통신대학, 1992), 288면.

49) 金嘯洙, 『親族·相續法』(法文社, 1999), 528-529면.

50) 郭閔直, 『相續法』(博英社, 1997), 136면.

야 한다는 견해⁵¹⁾ 등이 대립하고 있다. 그러나 앞의 두 견해는 戶主制度가 완전히 폐지된 이후에는 몰라도 현재와 같이 명목상이기는 하지만 戶主承繼制度가 있는 이상, 이를 무시하고 제사주재자를 별도로 생각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실제로 어떤 방법에 의하여 제사주재자를 결정하더라도 호주승계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제사용재산을 승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은 틀림이 없다. 그리고 이 규정의 연혁으로 보나 관습에 비추어 보더라도 호주승계인이 제사를 주재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므로, 호주승계인이 제사를 승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견해가 일용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⁵²⁾. 또 호주승계인이 제사를 주재할 형편이 되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도 있다. 이 경우에는 가족의 협의에 의하여 제사주재자를 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共同承繼가 된다고 보는 견해⁵³⁾가 있으나 이는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여지가 있다. 따라서 제사주재자의 자격 및 순위에 관하여는 호주제도 및 호주승계제도를 폐지하고 이에 관한 특별법을 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⁵⁴⁾.

한편 제사용재산의 승계에 관한 법적 성질을 일종의 祭祀相續이라고 하는 견해⁵⁵⁾와 이에 반대하는 견해⁵⁶⁾가 대립하고 있다. 민법 제1008조의 3에 규정된 제사용 재산의 내용을 보면 전통적인 유교적·종법적 제사를 위한 재산이기 때문에, 동 규정은 제사상속을 전제로 하여 규정한 것임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민법상에는 재산승계자에게 제사를 거행할 의무, 특정 祭祀形式에 따를 의무, 제사용재산의 보존의무 등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제사상속의 규정으로서 매우 미비하여, 이 규정은 이들 특별재산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는데 그 법률적 의의가 있다고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⁵⁷⁾

이렇게 볼 때, 우리나라의 제사용재산을 둘러싼 문제는 일본보다는 오키나와의

51) 朴秉濠, 前掲書, 288面.

52) 李庚熙, 『家族法』(法元社, 1999), 341面.

53) 金嘯洙, 前掲書, 529面.

54) 李庚熙, 前掲書, 341面.

55) 金嘯洙, 前掲書, 528面.

56) 郭潤直, 前掲書, 137面.

57) 李庚熙, 前掲書, 341面; 朴秉濠, 前掲書, 289面.

경우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즉 제사용재산에 족보, 제구, 분묘 이외에 이들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전답 등의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그러하고, 또 제사 상속에 남자우선적인 관습이 강하게 남아 있다는 것과 이러한 제사용재산의 승계에 門中이 강력하게 간섭한다는 등의 문제가 그러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오키나와에서는 적어도 민법상으로는 족보, 제구, 분묘 이외의 제사용재산을 특별재산으로 인정하지 않는데 비하여, 우리나라에서는 민법상으로도 이를 특별재산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한층 심각할 수가 있다. 더구나 이러한 재산을 승계하는 자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기 때문에 이를 둘러싼 분쟁해결방법 또한 마련되어 있지 않다.

VI. 맺는 말

필자가 오키나와의 토오토메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오키나와는 일본의 家督相續과는 전혀 다른 사상적 배경과 전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고, 특히 일본 新民法의 시행 이후에는 일본과는 상당히 다른 차원의 법률적 갈등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祭祀用財産에 관해서는 일본본토에서도 1948년의 신민법 제정 당시부터 많은 논쟁을 거쳤던 문제이지만, 오키나와에서는 지금까지도 토오토메 승계에 대하여 민법의 규정보다는 관습적인 男系血緣中心의 承繼原理가 더욱 강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회적 갈등 및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다. 민주화과정에서 제기되는 남녀평등의 문제라든가, 산업화함에 따라 발생하는 祖先奉祀의 어려움 등의 문제가 정면으로 전통적인 토오토메승계 원리에 부닥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가족법규정 중에서도 가장 애매한 부분 중의 하나가 바로 祭祀用財産의 승계에 관한 것이다. 이의 원만한 해결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祭祀 즉 조상 숭배에 대한 역사적, 민속적, 사회적, 법률적 측면의 연구가 필요함은 물론, 동일한 문화권이었던 중국, 대만, 일본 등의 법적 동향을 비교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

각한다.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가장 유사한 상황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오키나와이기 때문에, 오키나와의 토오토메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과 제사용재산을 둘러싼 문제의 상황을 살펴보았다. 워낙 방대한 범위의 문제이기 때문에 개괄적인 소개에 그치고 만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가짐으로써 이 방면의 연구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특히 祭祀用財産에 관해서는 자세히 언급하고자 하였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별고로 미루기로 한다.

A Study on the *Totome* Succession in Okinawa

Lee, Kyung-Hui*

Totome generally means the memorial tablet itself in which Okinawan people keep their ancestor's spirit. In Okinawa, it represents spiritual and religious consciousness pattern of its residents. Especially in the south-central region of Okinawa there used to be strict taboo elements in the succession of totome. 'Tachi Majikui' is one of taboo elements, which prohibits the totome ceremony from being held by the descendents who are not members of the paternal lineage. It is strictly forbidden for anyone who does not belong to the paternal lineage to be involved in the ceremony.

'Chachi Ushikumi' allows only the eldest sons to hold the ceremony. 'Chodi Casabai' forbids the same lineage brothers's tablets to be repeated in the same altar.

'Inagu Gansu' forbids daughters to be elected as the proper successor or inheritor.

Okinawa's relative pattern, therefore, is based on the paternal lineage system, which imitates Chinese clan rules system. Those taboos can also be interpreted as the ethical principles of the paternal ceremony succession. At the same time, however, in Okinawa we can find that the mutual--that is, both the paternal and maternal--blood lineage is the prevailing practice which is commonly held among common people. Therefore, the basic principle of totome succession in Okinawa can be fully understood in terms of the mixed spirit of Chinese clan rules system and the Okinawa residents' native culture and religion.

In matters of the inheritance of property and the succession of totome, it becomes

* Professor of Law Hannam University

more complicated for the households which have no sons but daughters. According to the common practice of totome succession, 'Inagu Gansu' already prohibits any daughters to be the inheritor of totome. Thus, the adopted son who belongs to the same family has been nominated as the successor not only of the totome but also of the property. If not, it is unavoidable for the daughters to be deprived all the property and totome. For such households, to have an adopted son is the only solution against the paternal lineage principles. These days, however, totome succession principles cause diverse social problems such as, 1) the dissolution of marriage for not having baby-boys, 2) having a mistress for bearing baby-boys, 3) the family dispute for the adopted son's having all the privilege before the legal daughter, 4) the forced conception expecting the baby-boys, 5) the forced adoption for the baby-boys, 6) the press for the eldest son to stay in the household keeping totome, 7) the intimidation for the widow to give up all the privilege to the selected totome successor. How these problems will be approached is one of big concern for the Japanese people these days.

After the enforcement of new civil law Japanese people have legal conflict for the above problems. Especially, even to the mainland Japanese people the issue of property for memorial service has been a big social issue since the enforcement of new civil law. To the Okinawan people the problem of totome succession is still one of the main social conflicts, because in Okinawa the common practice of the parental lineage still prevails the legal regulations. It causes many social problems which result from the enforcement of the democratic systems or of the equality of the sexes. The totome succession in Okinawa is a touchstone for Japan to solve the conflict between the old and new succession systems.